경희人 –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②

“조금 느려도 괜찮아”, 커피와 함께 희망을 내리다

쿠피 장애인 근로자 김동현, 이현석 씨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 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커피가 나온다. 아침 수업 10분 전, 학생들은 학내 카페 ‘KHUFFEE(쿠피)’의 커피로 밀려오는 졸음을 쫓는다. 밤늦게 잠든 어제의 나를 탓해보지만, 새 하루는 찾아왔다. 작은 후회들이 교실에 모여, 어느새 아침 수업은 구수한 커피 향기로 가득해진다.

쿠피는 오전 8시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예술디자인대학(예대) 매장에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은 김동현 씨의 몫이다. 손님이 많아지는 11시가 되면, 이현석 씨가 와서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희망을 내리고 있는 그들을 만나봤다.

그들의 이름 뒤에는 ‘지적 장애인 3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사회는 그들의 이름이 아닌 꼬리표를 불렀다. ‘지적 장애인’이란 낱말에 담긴 편견은 이들의 일생을 옭아매왔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석 씨는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가 다니던 학교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붙어 있는 구조였다. 일반 학생들은 특수학급을 넘나들면서 현석 씨를 괴롭혔다. “맞는 것은 일상이었고, 화내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이상한 협박도 들어봤어요.”

장애는 현석 씨가 자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내려와 보니, 사람들은 현석 씨를 그렇게 지칭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학교부터 벗어나야했다. 현석 씨가 직업을 일찍 찾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다른 학생들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현석 씨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첫 번째 직업으로 삼았다. 단순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같은 날에 입사했던 동기와 함께한 추억은 현석 씨에게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까지는 같은 학교 친구들만 있었는데, 사회에서 다른 학교 친구를 사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김동현(왼쪽) 씨와 이현석(오른쪽) 씨는 예술디자인대학에서 미소와 함께 손님을 대한다.

> 합격 소식을 듣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라면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2014년 가을, 쿠피가 첫 영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현석 씨는 쿠피에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개를 받았다. 평소 현석 씨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서울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제안이었다. 우체국에서 함께 한 동료가 눈에 밟혔지만, 현석 씨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기로 결정했다. 훗날 이루고 싶었던 ‘나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현석 씨에겐 쿠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간절했다. 면접 당일, 현석 씨는 여느 일반인 면접자와 마찬가지로 양복을 빼입고 면접장으로 나섰다. “면접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현석 씨는 면접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연습한대로 잘 해냈다. ‘나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꺼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석 씨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다.

현석 씨와는 다르게, 동현 씨는 특수학교를 다녔다. 수업 커리큘럼은 자율적이었다. 동현 씨에게 학창 시절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에버랜드에 놀러가서 친구들과 놀이기구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본 일은 아직도 기억나요.” 동현 씨는 기분이 울적해질 때면 그때 일을 가끔 떠올려보곤 한다.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다. “학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라떼, 아이스 라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등학생 3학년이 되고, 동현 씨는 마침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냈다.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다. “합격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엄청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라면서 친척, 주변 사람들까지 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다. 직접 발품을 팔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알아봤다. 그러다 서울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쿠피 장애인 근로자를 인터뷰한 영상을 접했다. 영상 속에는 현석 씨가 있었다.

동현 씨는 영상 속 인물이 대단해 보였다.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현 씨를 더 놀라게 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쿠피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동현 씨는 그때 영상에서 봤던 현석 씨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출발선은 달랐지만, 그 인연은 일을 함께하기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등학교 3학년, 동현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무의 벽은 높았다. 사람들과 마주하고 직접 주문을 받는 일은 처음이었다. “딸기랑 블루베리 스무디를 시켰는데, 딸기랑 망고 스무디로 잘못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동현 씨는 그때의 실수를 지금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동현 씨는 월급 일부를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린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머지는 가족의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 가족이 무너진다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릴 것만 같았다. 자격증을 땄을 때 가장 기뻐해준 사람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마다 고민을 들어준 사람도 가족이었다. 가족은 동현 씨의 초심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쿠피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현석 씨와, 이듬해 인터뷰 영상을 보고 합류한 동현 씨는 어느덧 회사에서 베테랑 직원으로 손꼽힌다.

그들이 같은 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베테랑답게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몰입한다. “아이스 음료는 아까 다 팔려서, 이제 주문이 안 돼요.” 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들 덕분에 예대 매장의 얼음은 마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동나고 만다.

이곳의 영업 비밀은 단골손님을 대하는 방법에 있었다. 손님의 얼굴을 기억해두고 어떤 음료를 시킬지 예상해본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지, 주문이 날마다 바뀌는 손님을 만나면 “오늘은 뭘 드실까?”라는 고민에 빠져본다. 주문에 특이한 조건을 다는 손님에게는 선수를 친다. “휘핑크림 좋아하시죠? 많이 넣어드릴게요.” 단골손님에 대한 그들 나름의 애정 표현이다.

지금껏 사회는 ‘지적 장애’라는 낱말 자체에 주목했다. 이는 개인이 가진 가능성마저 속박하는 틀이 되고 말았다. ‘지적 장애인 3급’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수반된다면, 이들은 각자 고유한 색깔을 뽐내며 다채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그동안 저를 잘 봐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동현 씨의 마지막 말에는 따뜻한 진심과, 그만의 짙은 색깔이 담겨 있었다.

2019-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 기간 내 취득 실적(단, 2018-2학기 포인트 기인정내역 제외) · 신청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 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포인트 환산기준 : 1포인트 1원 ·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 포인트 인정 기준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의약학계열 15학점) · 신청기간 : 2019. 06. 17.(월) ~ 2019. 07. 14.(일) 24:00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9-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버튼 클릭, 완료 · 제출서류 : 온라인 대체,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함) ※ 포인트 관리 : 학생은 본인의 실적을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역량관리에 등록한 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메뉴 :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 입력)
포인트 인정 처리	· 단과대학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 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지급일 : 2019. 08. 16.(금)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유의사항		
	학업역량	· 소속 단과대학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 · 단체전,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n로 계산(장학금은 백원 단위에서 절사) · 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 · 취득(게재)일 : 수상실적은 상장에 기재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
	사회봉사역량	·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인증관리(vms.or.kr)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 1일 최대 8시간 인정 · 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 학점 인정 봉사 활동 - 교내·외 장학 및 국가교육근로 등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 -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 · 학기당 헌혈증 2장 인정(1장에 5,000포인트)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본교 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행하는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 · 봉사활동 인정 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
	국제화역량	· 영어항목 : 토익, 토플, 텝스, G-TELP, 오픽(OPICs), 토익스피킹, IELTS 중복 인정 불가(택1) 스페인어항목 : DELE, FLEX 중복 인정 불가(택1) ·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향상 시 2회까지 신청 가능 ※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항목은 한 학기 당 1회만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 ·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기간내 취득한 성적증명서
	기타역량	·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IT, 한국사, 한국어 항목의 경우 재학기간 중 등급향상 시 2회까지 인정 ※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항목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 · 자격증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내에 취득한 자격증